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 유형

이 현 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제 1 장 서 론

국내 인터넷사용자가 2001년 6월 현재 2,223만명으로 그 이용률이 51.6%에 달하고, 또 가정에서의 인터넷 가능률 또한 56.1%에 달해(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 그야말로 “인터넷의 생활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뿐만아니라 최근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주부인터넷교육에 힘입어 주부의 인터넷사용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가정에서 주부의 인터넷사용의 증가는 주부 개인의 생활 뿐 아니라 가족체계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학내 연구소이나 프로젝트차원에서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들면 미국 Carnegie Mellon 대학의 「The HomeNet Project」, 미국 Stanford 대학의 계량사회학연구소(SIQS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등에서 인터넷활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터넷패널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은 인터넷사용실태에 대한 기초조사(한국전산원, 2001; 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1999, 2000;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 2001)내에서 인터넷사용 이후 변화된 생활양상이 일부 제시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실태조사 이외에 인터넷이나 정보화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박부진, 1998; 조은, 1998; 조정문 외, 1999; 박부진·이해영, 2000)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또 일부는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제까지 정보화의 소외계층으로 간주되었던 주부들의 인터넷사용이 급증하면서 가족원간의 관계나 가족내 자원관리행동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시점에서,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를 유형화해봄으로써, 인터넷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체계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가족체계의 하위요소를 관리적, 인적하위체계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를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유형화된 집단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터넷관련 연구와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체계적 접근법은 체계에 초점을 두고 체계의 구성요소인 하위체계,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체계, 하위체계, 환경간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다(김외숙, 이기영, 최은숙; 1994). 체계적 접근법에 의하면 가족의 하위체계는 기능에 따라 인적 하위체계(personal subsystem)와 관리적 하위체계(managerial subsystem)로 나뉜다(Deacon과 Firebaugh, 1988).

관리적 하위체계는 자원을 사용하여 가족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체계로 주로 시간이나 금전, 공간, 에너지와 같은 자원의 사용을 관리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리적 하위체계의 변화를 시간관리와 재무관리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계획성, 효율성, 균형성의 차원에서 관리행동의 변화를 분석한다. 여기서 ‘계획성’은 자원관리의 가장 기본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체계적 접근법에 의하면 자원관리는 가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의 사용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욕구충족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원관리의 ‘계획성’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균형성’은 자원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자원관리의 원리로 간주되고 있다(김외숙, 이기영, 최은숙, 1996; 이기영, 조영희, 송혜림, 이승미, 1998). 자원관리의 목적이 자원사용의 양은 극소화하면서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므로(임정빈 외 1994), 자원관리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나 금전의 차원에서 자원사용을 극소화하면서 만족을 극대화하고자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자원관리의 속성을 ‘효율성’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원관리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균형성’은 가족원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측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나 금전 등의 자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는 관리적 행동의 속성을 ‘균형성’이라 보았다.

한편 인적 하위체계는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발달하는 표현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체계로 가족원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가족관계는 가족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 역할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간의 심리적·정서적 구조인 개인적·심리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다(유영주, 1996).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적 하위체계의 변화를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되, 가족관계를 개인적·심리적 관계의 측면

과 사회적 관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여기서 개인적·심리적 관계는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가족내 권력구조나 역할구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족관계의 개인적·심리적 측면인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가족관계의 사회적 측면인 부부간 성역할관계의 평등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가족체계의 하위요소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는 아래 표에 제시한 하위요소를 기준으로 가족체계의 변화를 유형화해보았다.

<표1>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하위체계	수행기능	하위요소	하위요소의 속성
관리적 하위체계	도구적 기능	시간관리 재무관리	계획성 효율성 균형성
인적 하위체계	표현적 기능	가족관계	친밀감 평등성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는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3.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유형화된 집단별 특성은 어떠한가?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부’로 하였다. 이때 인터넷사용의 기준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인터넷이용자기준을 따라 ‘월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로 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2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2000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인터넷조사 전문기관에 의

뢰하여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1년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on-line)조사와 면접원을 통한 오프라인(off-line)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316명, 오프라인을 통해 300명, 전체 61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58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빈도, 백분율, 평균, 일원분산분석, 다중범위검정, 군집분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변수설정을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및 논의

1.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

- 1) 시간관리의 변화
- 2) 재무관리의 변화
- 3) 가족관계의 변화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를 시간관리, 재무관리,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주부의 인터넷사용은 시간관리와 재무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시간관리와 재무관리의 불균형성을 야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관계의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가족원간 친밀감은 향상된 경향이 있고, 부부간의 평등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 유형

가족체계의 변화에 따른 유형화는 시간관리와 재무관리의 계획성, 효율성, 균형성, 그리고 가족관계의 친밀감과 평등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은 관리적 하위체계의 긍정적인 변화로 그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합하여 하나의 기준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관리의 균형성은 그 척도가 부정적 표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불균형성’으로 표현하고 이를 유형화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인터넷사용이 관리의 균형성을 도모하기보다는 불균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친밀감 중 부부관계의 친밀감만을 대표적인 기준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자관계의 친밀감까지

포함할 경우 자녀가 없는 가족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조사대상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리의 계획성·효율성, 시간관리의 불균형성, 재무관리의 계획성·효율성, 재무관리의 불균형성, 부부관계의 친밀감, 부부관계의 평등성의 6개 변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를 유형화해보았다. 여러 차례의 군집분석 결과, 세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형화된 세 집단의 빈도와 각 집단별 기준변수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먼저 집단1은 시간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 재무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 그리고 부부관계의 친밀감, 부부관계의 평등성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즉,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계획성과 효율성, 친밀감과 평등성이 크게 향상된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긍정적 변화집단'이라 명명할 수 있다. 반면 집단2는 집단1과 반대로 긍정적인 변화는 평균적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데 반해 부정적 변화라 할 수 있는 시간관리의 불균형성과 재무관리의 불균형성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를 '부정적 변화집단'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3의 경우 모든 차원에서 점수가 전체 평균이하로 인터넷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집단3은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집단이므로 이를 '무변화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표2> 가족체계의 변화 유형별 각 하위차원의 평균 차이

	집단1 (N=191)	집단2 (N=191)	집단3 (N=200)	전체 (N=582)	F값
시간관리의 계획성·효율성	3.54 a	3.05 b	2.73 c	3.10	124.17** *
재무관리의 계획성·효율성	3.74 a	3.40 b	2.75 c	3.29	170.35** *
시간관리의 불균형성	2.78 b	3.68 a	1.93 c	2.78	439.45** *
재무관리의 불균형성	2.91 b	3.06 a	2.17 c	2.70	133.89** *
부부관계의 친밀감	3.70 a	3.09 b	3.15 b	3.31	67.40***
부부관계의 평등성	3.22 a	2.94 b	2.65 c	2.93	51.86***

***p < .001

2.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 유형별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3>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변수(단위)		N	평균	DMR Test	F값	Sig.
연령 (세)	긍정적 변화집단	191	34.61	a	4.78	.009
	부정적 변화집단	191	34.88	a		
	무변화 집단	200	36.62	b		
	Total	582	35.39			
월평균 소득 (만원)	긍정적 변화집단	191	265.15	-	.199	.820
	부정적 변화집단	191	262.66	-		
	무변화 집단	200	269.35	-		
	Total	582	265.78			
학력년수 (년)	긍정적 변화집단	191	13.91	a	5.55	.004
	부정적 변화집단	191	13.55	ab		
	무변화 집단	200	13.23	b		
	Total	582	13.56			
취업여부 (취업=1)	긍정적 변화집단	191	.39	a	3.82	.022
	부정적 변화집단	191	.28	b		
	무변화 집단	200	.41	a		
	Total	582	.36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유형화된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3).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종합해볼 때, 긍정적 변화집단의 주부는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취업한 경우가 많고, 부정적 변화집단의 주부는 상대적으로 젊고, 전업 주부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변화 집단의 주부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취업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2) 인터넷관련 특성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 유형별 인터넷관련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4). 우선 사용시간은 부정적 변화집단이 가장 많고,

무변화 집단이 가장 적다. 긍정적 변화집단의 인터넷사용시간은 평균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인터넷사용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부정적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용경력 면에서 볼 때, 긍정적 변화집단의 경력이 부정적 변화집단과 무변화 집단의 경력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인터넷사용경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사용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긍정적 변화집단과 부정적 변화집단의 사용능력이 무변화 집단 보다 높다. 즉 사용능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영향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대로 사용능력이 낮은 경우 인터넷활용수준이 떨어지므로 그 영향도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사용장애는 부정적 변화집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긍정적 변화집단, 무변화집단 순이다. 인터넷 사용장애가 클수록, 시간관리나 재무관리의 불균형성과 같은 인터넷사용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사용동기는 모든 차원에서 긍정적 변화집단과 부정적 변화집단이 무변화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긍정적 변화집단과 부정적 변화집단의 도구적 동기, 여가적 동기, 자기발전적 동기, 정보적 동기가 무변화 집단의 동기수준 보다 높다. 무변화 집단의 경우 인터넷사용에 대한 동기가 낮기 때문에 그 활용수준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용여부는 긍정적 변화집단이 부정적 변화집단과 무변화 집단에 비해 높다. 이는 남편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터넷관련 변수의 차이를 종합해 볼 때, 긍정적 변화집단은 사용경력 수준이 높고, 사용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측면의 동기가 강하며, 인터넷사용시간은 평균적으로 적당한 수준이고, 사용장애는 그리 크지 않고, 남편의 인터넷사용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부정적 변화집단은 사용능력이나 사용동기는 긍정적 변화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나, 사용시간이 매우 길고, 사용시 겪는 장애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무변화 집단은 3집단 중 사용시간이 가장 적고, 사용경력과 사용능력의 수준이 가장 낮고, 모든 동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다.

<표4>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 유형별 인터넷관련 특성의 차이

		N	평균	DMR Test	F값	Sig.
사용시간 (주당시간)	긍정적 변화집단	191	10.51	b	35.19	.000
	부정적 변화집단	191	14.22	a		
	무변화 집단	200	6.18	c		
	Total	582	10.24			
사용경력 (개월)	긍정적 변화집단	191	23.12	a	6.18	.002
	부정적 변화집단	191	20.39	b		
	무변화 집단	200	18.48	b		
	Total	582	20.63			
사용능력	긍정적 변화집단	191	3.19	a	57.56	.000
	부정적 변화집단	191	3.18	a		
	무변화 집단	200	2.43	b		
	Total	582	2.93			
사용장애	긍정적 변화집단	191	2.81	b	12.35	.000
	부정적 변화집단	191	2.96	a		
	무변화 집단	200	2.70	c		
	Total	582	2.82			
도구적 동기	긍정적 변화집단	191	3.52	a	49.41	.000
	부정적 변화집단	191	3.33	a		
	무변화 집단	200	2.86	b		
	Total	582	3.23			
여가적 동기	긍정적 변화집단	191	4.01	a	31.04	.000
	부정적 변화집단	191	4.03	a		
	무변화 집단	200	3.59	b		
	Total	582	3.87			
자기 발전적 동기	긍정적 변화집단	191	4.13	a	14.96	.000
	부정적 변화집단	191	4.04	a		
	무변화 집단	200	3.85	b		
	Total	582	4.00			
정보적 동기	긍정적 변화집단	191	3.75	a	12.55	.000
	부정적 변화집단	191	3.74	a		
	무변화 집단	200	3.46	b		
	Total	582	3.65			
남편사용 (사용=1)	긍정적 변화집단	191	.95	a	4.03	.018
	부정적 변화집단	191	.88	b		
	무변화 집단	200	.88	b		
	Total	582	.90			

3) 체계내 역동성 특성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의 유형별 체계내 역동성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5>와 같다. 시간관리능력, 재무관리능력,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 모두 부정적 변화집단과 무변화 집단 보다 긍정적 변화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주부의 시간관리능력과 재무관리능력이 뛰어나고, 평소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또한 높을 때, 인터넷사용이후 가족체계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평소 주부가 지닌 시간관리능력과 재무관리능력,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등의 체계내 역동성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표5>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 유형별 체계내 역동성 특성의 차이

		N	평균	DMR Test	F값	Sig.
시간관리 능력	긍정적 변화집단	191	3.53	a	12.25	.000
	부정적 변화집단	191	3.31	b		
	무변화 집단	200	3.32	b		
	Total	582	3.38			
재무관리 능력	긍정적 변화집단	191	3.81	a	6.84	.001
	부정적 변화집단	191	3.63	b		
	무변화 집단	200	3.61	b		
	Total	582	3.68			
가족 응집성	긍정적 변화집단	191	3.73	a	2.81	.060
	부정적 변화집단	191	3.63	b		
	무변화 집단	200	3.62	b		
	Total	582	3.66			
가족 적응력	긍정적 변화집단	191	3.80	a	8.91	.000
	부정적 변화집단	191	3.68	b		
	무변화 집단	200	3.59	b		
	Total	582	3.69			

앞서 살펴본 유형별 특성을 종합해보면, 긍정적 변화집단의 주부는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취업한 경우가 많고, 사용경력 수준이 가장 높고, 사용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측면에서 사용동기가 강하며, 인터넷사용시간은 평균적인 수준이고, 사용장애는 그리 크지 않고, 남편의 인터넷사용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관리능력, 재무관리능력,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편 부정적 변화집단의 주부는 상대적으로 젊고,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고, 사용능력이나 사용동기는 긍정적 변화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나, 사용시간이 매우 길고, 사용장애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시간관리능력이나 재무관리능력,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이 긍정적 변화집단에 비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무변화집단의 주부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취업한 경우가 많고, 3집단 중 사용시간이 가장 짧고, 사용경력과 능력의 수준도 가장 낮고, 모든 동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다. 시간관리능력과 재무관리능력,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등은 부정적 변화집단과 마찬가지로 낮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우선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는 ‘긍정적 변화집단’, ‘부정적 변화집단’, ‘무변화 집단’으로 유형화되고, 각 유형별로 특성(사회인구학적 변수, 인터넷관련 변수, 체계내 역동성 변수)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가족체계의 변화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인터넷사용의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교육이나 정보화정책도 다양한 주부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즉, 긍정적 변화집단, 부정적 변화집단, 무변화집단의 특성을 통해 이들에게 철저하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각 집단의 특성에 적합한 인터넷교육과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궁극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수단이라 할 때, ‘긍정적 변화집단’은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생활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집단이므로 주부대상 인터넷교육이나 정책의 기준집단으로 삼을 수 있다. 반면 ‘부정적 변화집단’과 ‘무변화집단’은 인터넷을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무변화집단’은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취업주부가 많고, 사용시간이 짧고, 사용경력과 사용능력 수준이 낮고, 인터넷사용동기 또한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나, 주부집단 중에서도 특히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이고, ‘부정적 변화집단’은 인터넷사용능력과 사용동기는 강하지만, 인터넷 사용경력이 짧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젊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이들에 대한 주부인터넷교육과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철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 유형별 특성에 근거해 볼 때, 우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사용능

력과 사용동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인터넷사용능력과 사용동기를 갖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즉, 시간관리능력이나 재무관리능력과 같은 기본적 관리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인터넷사용능력과 사용동기가 오히려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정적 변화집단과 긍정적 변화집단의 특성 중 가장 큰 차이는 시간관리능력과 재무관리능력,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등의 체계내 역동성 변수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긍정적 변화는 시간관리능력, 재무관리능력,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 등의 체계내 역동성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상태에서 주부가 인터넷사용능력과 사용동기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를 토대로 주부인터넷교육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주부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터넷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부인터넷교육차원에서 인터넷사용능력과 사용동기를 개발하고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사회교육차원에서 주부의 시간관리능력이나 재무관리능력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인터넷이 우리생활의 편리함을 향상시키는 도구이자, 가족원간 친밀한 관계를 매개해주는 일종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정책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외숙 · 이기영 · 최은숙(1994). 가정관리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1996).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박부진(1998). “정보화사회의 가족관계 -위계구조의 변화와 적응”, 서울대인류학연구회,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105-129, 집문당.
- 박부진 · 이해영(2000). “인터넷의 생활화와 가족문화의 변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 대회 자료집, 15-34.
- 유영주(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 이기영 · 조영희 · 송혜림 · 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교문사.
- 임정빈 · 지영숙 · 문숙재 · 이기영 · 이연숙(1994). 가정관리학, 학지사
- 조 은(1998). “정보화와 가족생활의 변화”, 정보화로 가는 길, 98.5, 14-17.
- 조정문 외(1999). “정보화시대의 공동체-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33 여름, 389-415.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0). 인터넷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_____ (2001). 인터넷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전산원(2001). 2001 한국인터넷백서.
- 한국정보문화센터(1998). 국민정보화인식 및 정보생활실태조사.
- _____ (1999).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 _____ (2000).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th ed, Allyn & Bacon Inc., Boston.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W.(1998). "Internet Paradox :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 Pew Internet & America Life Project(2000). "Tracking online Life: How Women Use the Internet to Cultivate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 SIQSS(2000). Norman, H. Nie & Lutz Erbring, "Study offers Early Look at How Internet is Changing Daily Life".